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3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7%	20번	(독서 : 예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4위	40%	19번	(독서 : 예술) - 지문 <보기> 세부 일치
오답률 3위	45%	34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55%	38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64%	35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현대소설 :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 고전시가 : 안도환, ‘만언사담’

[문법] 11번, 13번, 14번

[독서] 과학 지문 : 물질의 연소에 관한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7%) 예측] : 독서-예술 20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상주의 화가들은 명암법이 야외의 햇빛 아래에 노출된 대상을 표현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 명암법이란 대상의 명암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대상의 입체감을 부각하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이다. 그런데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실내 작업실에서는 대상의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의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야외의 밝은 햇빛 아래에서는 대상의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 보이고 어두운 부분조차 주변의 다른 대상들에서 반사된 빛에 영향을 받아 밝게 보인다. 이러한 야외에서의 빛의 효과를 표현한 인상주의 회화에서 ([가])

- ① 각각의 대상은 일정한 색채를 띤 개별 사물로 보이기 쉬웠다.
- ② 각각의 대상은 화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거친 붓질 자국으로만 보이기 쉬웠다.
- ③ 각각의 대상은 강렬한 명암의 대조에 의해 표현되어 견고한 입체감이 부각되기 쉬웠다.
- ④ 각각의 대상은 겹겹이 덧칠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엉뚱한 색채를 띤 것으로 보이기 쉬웠다.
- ⑤ 각각의 대상은 멀리 떨어져서 볼 때에만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의 미묘한 변화가 눈에 띌 수 있었다.

[정답 : ②]

[Killer-Point]

<보기>에서 '명암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실제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언뜻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인상주의' 화가의 특성만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면 정답은 고를 수 있다.

<보기>는 지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명암법'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실내에서는 명암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야외에서는 명암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때 지문 마지막 문단의 '야외의 빛에 노출된 대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인상을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라는 문장이 떠올랐다면 아주 좋다. (떠오르지 않았다면 '야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지막 문단에서 찾았어야 한다.)

지문에 따르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야외의 빛에 노출된 대상의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빠른 붓질'로 물감을 칠해나갔다.

즉 마지막 문단에서 '야외'라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키워드로 '붓질'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연결되는 문장이 문단 마지막 쪽에 있는 '당시의 비평가들은 영성해 보이는 붓질과 불완전한 마무리를 신랄하게 조롱'했다는 문장이다.

그럼 이제 선지에서 '붓질'에 관련된 선지를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②번 선지가 바로 눈에 들어올 것이다. 다만 지문의 '빠른 붓질', '영성해 보이는 붓질'이라는 표현이 '거친 붓질'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 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런 인식은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 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앞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둔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不作蘭圖)>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 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글에 나타난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예술 작품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으로써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 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래된 주제이다.

- 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②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 ③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정답 : ⑤]

[오답률 4위(40%) 예측] : 독서-예술 19번 문항

[지문 <보기> 세부 일치]

19.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상주의는 사물을 화가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 하였다. 이는 서양 회화사에서 새로운 시도였지만 인상주의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세기에 ㉡클로드 로랭은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자연 풍경을 그렸고, ㉢네덜란드 화가들은 자연을 미화하지 않고 평범한 풍경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집중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풍경 전문 화가인 터너와 컨스터블이 등장했다. ㉣터너는 대상에 대한 주관의 투영이나 대상에 대한 지식을 배제한 채 대상이 주는 순간적인 인상을 빠른 붓질로 화폭에 담아냈고, 컨스터블은 자연 풍경을 미화하지 않고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화가들도 풍경화를 그렸으나 색채의 조화를 중시하느라 눈에 보이는 대로 대상의 색채를 그리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인상주의에 와서야 비로소 광선과 기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그 색조가 변하는 대상의 순간적인 '인상'이 화폭에 포착되기에 이르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 ④]

세부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선지를 차분히,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들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다소 헛맣을 수 있다. 만약 처음 읽을 때 정답 선지를 찾지 못하고 2-3번 읽고 나서야 정답 선지를 찾았다면, 자신이 선지를 대충 읽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4번 선지의 경우, '대상에 대한 지식을 ~ 빠른 붓질로 화폭에 담아냈고'는 맞는 진술이다. 그 앞에 '대상에 대한 주관의 투영'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다.

지문에 따르면 터너는 자신의 낭만적 '주관성'에 의해 숭고하게 고양된 자연 풍경의 역동적 모습을 묘사했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B형 공통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광택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29. ㉠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잘 읽기)

-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④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정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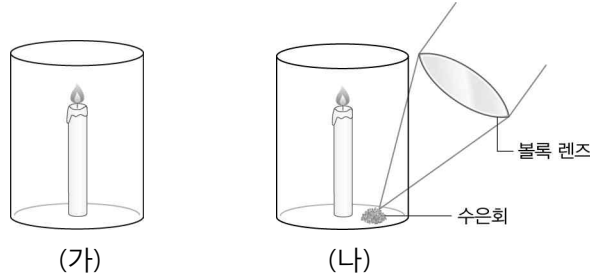
[오답률 3위(약 45%) 예측] : 독서-과학 34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34. 프리스틀리의 관점에 따라 볼 때,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는 불을 붙인 양초를 보통의 공기가 담긴 밀폐된 유리병에 넣어 둔 상태를 나타내고, (나)는 불을 붙인 양초와 수은회를 보통의 공기가 담긴 유리병에 넣은 다음 볼록 렌즈로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① (가)의 양초는 유리병에 플로지스톤이 부족해지므로 꺼진다.
- ② (나)의 수은회는 주위에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면서 수은이 된다.
- ③ (가)와 (나)의 양초는 모두 유리병 속 공기에 함유된 플로지스톤을 흡수한다.
- ④ (가)의 양초가 (나)의 양초보다 금방 꺼지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가 더 풍부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
- ⑤ (나)의 양초가 (가)의 양초보다 더 오래 타는 것은 수은회의 환원 반응이 유리병에 플로지스톤이 포화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Killer-Point]

[정답 : ⑤]

발문부터 제대로 읽어야 한다. '프리스틀리의 관점'에 따라 <보기>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와 (나)의 그림을 보자.

(가)에는 보통의 공기가 담긴 밀폐된 유리병에 불을 붙인 양초가 있다.

(나)에는 밀폐된 유리병에 불을 붙인 양초가 있고,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하고 있다.

그러면 두 그림 사이의 차이점은 유리병 안에 '가열되고 있는 수은회'가 있느냐 여부가 된다.

여기서 지문의 '수은회 → 수은' /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 개념이 찾을 수 있으면 정답까지 갈 수 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플로지스톤이 밀폐된 유리병에 가득 차면 더 이상의 플로지스톤 방출이 불가능해 불이 꺼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은회가 수은이 될 때 발생하는 기체는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기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기체를 모은 밀폐된 유리병에 불을 붙인 양초를 넣었을 때 '플로지스톤이 공기에 방출될 수 있는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의 공기 속에서보다 더 오랫동안 잘 탄다고 본 것이다.

이제 <보기>와 연결해보자. <보기>의 (가)는 보통의 공기 속에 초가 있는 상황이고, (나)는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 속에 초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보다 (나)에서 초가 더 오래 탈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3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ㄱ)~(ㄹ)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ㄷ) 반지름 5 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ㄹ) 반지름 5 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ㄱ)과 (ㄴ)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ㄷ)과 (ㄹ)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B는 A와 달리 (ㄹ)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정답 : ⑤]

<보기>에 따르면 A는 이치 논리인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는 물론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는 (ㄹ)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B는 LP와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B도 (ㄹ)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은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ㄷ)과 (ㄹ)은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때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B는 (ㄷ)과 (ㄹ)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로 판단할 것이다.

[오답률 2위(약 55%) 예측] : 독서-사회 38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Killer-Point]	<p>3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행정기관 A는 '○○법 제5조의 제1항을 1회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명한다.'라는 시행령에 따라 식당 주인 B에게 10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행정기관 C는 '□□법 제10조의 제2항을 1회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명한다.'라는 시행규칙에 따라 카페 주인 D에게 10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p> </div> <p>① '○○법 제5조의 제1항을 1회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명한다.'라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내린 명령일 수 있겠군.</p> <p>② '□□법 제10조의 제2항을 1회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명한다.'라는 시행규칙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이 아니겠군.</p> <p>③ B가 ○○법 제5조의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B는 법원에 A가 내린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겠군.</p> <p>④ B가 ○○법 제5조의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A의 처분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겠군.</p> <p>⑤ D가 □□법 제10조의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D는 C가 내린 10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이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 <보기>이다. 먼저 <보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p> <p><보기>의 행정기관 A는 B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행정기관 C는 D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즉 A와 C 둘 다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동일하나, 그 기준이 다르다. 행정기관 A는 '시행령(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였고, C는 '시행규칙(총리령과 부령)'을 기준으로 하였다.</p> <p>따라서 이 <보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따른 처분'과 '총리령, 부령에 따른 처분'이 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꽤나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p> <p>마지막 문단을 보면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그 처분이 상위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내용과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일 때에는 처분의 기준 자체가 상위의 법령이나 헌법에 위반될 때에만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온다.</p> <p>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아주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를 찾아야 한다. 전자는 '처분이 상위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하였고, 후자는 '처분의 기준 자체가 상위의 법령이나 헌법에 위반될 때'라고 하였다. 즉 상위의 법령이나 헌법과의 합치 여부를 따져야 할</p>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처분'이 후자는 '처분의 기준(=대통령령)'이 합치되는지를 따진다. 이제 <보기>와 연결해보자.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처분을 내린 A의 경우

= '처분의 기준', 즉 '시행령' 자체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따라 처분을 내린 C의 경우

= '처분', 즉 '영업 정지' 자체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처분을 내린 A-B의 상황에서 '처분', 즉 '영업 정지 명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4번 선지가 정답 선지가 되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 - 2016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은 이가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락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을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천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천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낙기간: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 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가) 갑은 을에게 을이 소유한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4월 5일에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답장을 4월 12일에 발송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을의 답장은 4월 22일에 도착했다.
- (나)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둑맞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에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 이후 정은 이 골동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로 30만 원을 은행에 지불했다.

- ① (가)에서, 을의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이전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4월 12일에 성립한다.
- ②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락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에서, 을이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 된다.
- ④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 ⑤ (나)에서, 정이 골동품이 없어진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정답 : ④]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이고, 배상액은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 정은 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3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손해로 발생했고, 그 금액이 정이 사려는 골동품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은 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오답률 1위(약 64%) 예측] : 독서-과학 35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35. 윗글을 참고할 때, ㉠~㉣의 견해를 중심으로 <보기>의 실험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 —

화학자 X는 금속이 산에 녹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모은 밀폐된 유리병에 수은회를 넣고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했다. 실험 결과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뀌면서 18g의 물이 생성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화학자 X는 수은회와 수은의 질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았다.

- ① ㉠은 <보기>의 실험에서 물이 생성된 것은 플로지스톤 이론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았겠군.
- ② ㉡은 <보기>의 실험에서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뀌면서 그 질량이 16g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③ ㉢은 <보기>의 실험에서 물이 생성된 것은 금속이 산에 녹을 때 발생하는 공기가 연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겠군.
- ④ ㉣은 <보기>의 실험에서 물이 생성된 것은 가연성 공기에 플로지스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의 오류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했겠군.
- ⑤ ㉤은 <보기>의 실험에서 수은회에서 방출된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과 유리병 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 섞여 물이 생성되었다고 추정했겠군.

[정답 : ②]

[Killer-Point]

지문의 6, 7문단 난이도가 꽤 높는데, 심지어 이 부분을 3문단과 연결해서 판단하도록 만든 문제이다. 정답 선지는 물론 오답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지문에서 확인해야 할 문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보기>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기>의 실험 상황에서 유리병 안에는 '금속이 산에 녹을 때 발생하는 기체', 즉 '가연성 공기'로 차 있다. 과학자 X는 가연성 공기로 차 있는 유리병 안에서 수은회를 가열해서 수은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는 것이다.

지문의 6, 7문단 내용이 정리가 된 학생이라면 <보기>의 상황이 지문에서 이미 제시한 실험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생성된 물의 질량을 18g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주었다는 것이다.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질량 수치를 제시해준 적이 없는데 <보기>에서 제시해 주었다면, 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계산'의 내용이 지문에 있었다는 것과 같다. 1:8(캐번디시) / 9:1:8(라부아지에)이라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면 잘 읽은 것이다.

라부아지에의 '산소 이론'에 따르면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만나 물이 생성될 때, 물, 가연성 공기, 산소의 질량 비율이 9:1:8로 본다. 따라서 물 18g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가연성 공기 2g과 산소 16g이 필요하다.

이제 4문단의 내용을 끌고 들어와야 한다. 가연성 공기와 결합된 산소 16g은 수은회가 수은이 되면서 방출된 것이다. 4문단에 따르면 수은회가 수은으로 환원되면서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이 산소가 방출되기 때문이므로,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뀌면서 감소한 질량은 16g일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 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

변화 없음	가다, 가고, 가지, 가게, 가라, 가서, 갈, 간 등	
변화 있음	‘ㄹ’ 탈락	쓰- + -어 → 써 / 꼬- + -어 → 꺼
	‘ㄹ’ 탈락	살- + -으니 → 사니 / 울- + -는 → 우는 날- + -니 → 나니?

· 불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고, 그를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 개념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고, 그를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①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ㅅ’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함	짓- + -어 → 지어
‘ㄷ’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뀜	걸- + -어 → 걸어
‘ㅂ’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바뀜	돕- + -아 → 도와
‘르’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르’가 ‘ㄹ ㄹ’로 바뀜	이르- + -어 → 일러
‘우’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함	푸- + -어 → 퍼

②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여’ 불규칙	어간 ‘하’ 뒤에서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뀜	합격하- + -어 → 합격하여
‘러’ 불규칙	어간 ‘르’ 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뀜	푸르- + -어 → 푸르러 이르- + -어 → 이르러
‘너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어라’가 ‘너라’로 바뀜	오- + -거라 → 오너라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바뀜	달/다- + -아라 → 다오

③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뀜	파랑- + -아서 → 파래서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영지가 잡아서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달이 구름에 가듯이 간다.
⑤ 부사형 어미 ‘-ㄴ수록’	해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말도 없이 갔다. → ‘없이’가 단독으로 부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 기능을 유지한 채 ‘말도 없이’ 전체가 부사어 노릇을 하는 것.

[선택지 해설]

13. ④

정답해설 답은 ④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에서’에 대해 이해해야 해. ‘에서’는 같은 형태로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모두 존재해. 먼저 ‘주격 조사’의 예시를 보면,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봉사단을 파견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이때 서술어 ‘파견하다’의 주체가 ‘정부’잖아. 이를 통해 이 문장에서 ‘에서’는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어. 특이한 점은 주격조사 ‘에서’는 ‘정부’와 같은 ‘단체 무정 명사’ 뒤에 사용된다는 거야. 다음으로 ‘부사격 조사’의 예시를 보면 ‘나는 학교에서 자율 학습을 했다’에서와 같이 어떤 ‘위치/낙착점’을 의미해. 그럼 ④를 살펴보자. 먼저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정부에서’가 주어인지 부사어인지 판단해야 해. 자 이때 ‘정부에서’는 ‘실시한’을 서술어로 가져. 즉 ‘실시하다’라는 서술어의 주체가 ‘정부’이며 이 정부는 단체 무정 명사로 주격 조사 ‘에서’를 가질 수 있어. 정리하면 ‘정부에서’는 ‘주어’로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성분에 해당해. 다음으로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에서 ‘도서관에서’를 보자. 이때 ‘도서관에서’의 ‘에서’는 ‘도서관’이라는 위치, 낙착점을 의미해. 그러므로 ‘에서’는 부사격조사고 ‘도서관에서’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더불어 ‘도서관에서’는 부사어로 문장에서 필수적 성분이 아니야.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형은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에서 부사어는 ‘충분히’와 ‘잠으로써’야. 먼저 ‘충분히’는 ‘충분(어근)- + -히(접사)’로 이루어졌어. 이때 ‘-히’는 어근 뒤에 붙어서 부사를 만드는 부사 파생 접미사야. 즉, ‘충분히’는 ‘충분하다’의 어근 ‘충분’ 뒤에 부사 파생 접미사 ‘-히’가 붙어서 이루어진 ‘부사’야. 이렇게 ‘부사’가 된 ‘충분히’는 뒤에 오는 용언의 명사형 ‘잠’을 꾸미며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음으로 ‘잠으로써’를 보자. ‘잠’은 ‘자-(어간) + -(으)ㅁ(명사형 전성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 즉, ‘잠’은 완벽한 명사가 아니라 원형태인 동사 ‘자다’에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로 바뀌어 ‘명사형’이 된 경우야. 용언의 명사형은 품사가 그대로 동사로 명사가 아닐 뿐, 명사의 역할은 하므로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어. 이에 뒤에 ‘으로써’를 붙여서 문장의 서술어인 ‘풀었다’를 꾸미며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②를 살펴보자.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문법적이지만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다.’은 비문법적이야. 그 이유는 ‘여간’이라는 부사 때문이야.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로 예시에서 보듯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 해.

③을 살펴보자. 먼저 ‘친구가 소리도 없이 내 뒤로 다가왔다.’에서 안은 문장은 ‘친구가 내 뒤로 다가왔다’이며, 안긴 문장은 ‘소리도 없어야. 즉 ‘소리도 없다’라는 문장에서 어미 ‘-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로 바뀐 후 안은 문장에 부사절로 안겼어. 그리고 부사절 ‘소리도 없이’는 안은 문장의 서술어인 ‘다가왔다’를 꾸미면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음으로 ‘지금은 학교에 가기에 늦은 시간이다.’에서 안은 문장은 ‘지금은 -에 늦은 시간이다.’이며 안긴 문장은 ‘학교에 가기’야. 즉 ‘(누군가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에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기’로 바뀐 후 명사절로 안은 문장에 안겼어. 그런데 ‘명사’ 뒤에는 격조사가 와서 해당 명사의 문장 성분을 결정하잖아. 명사절도 마찬가지로. 이에 ‘학교에 가기’라는 명사절 뒤에 ‘-에’라는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이 명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⑤를 살펴보자. ‘얼음이 물로 되었다.’에서 ‘얼음’은 최종적으로 ‘물’로 변했어. 즉 ‘물’의 ‘로’는 얼음이 최종적으로 변한 형태인 ‘물’ 뒤에 붙어서 그 변화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어. 다음으로 ‘이 안경은 유리로 만들어서 무겁다.’에서 ‘유리’는 안경의 재료로 ‘로’는 ‘유리’ 뒤에 붙어서 ‘유리’가 안경의 재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동화의 유형

순행 동화	앞의 음운의 뒤의 음운을 바꾸는 동화
역행 동화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을 바꾸는 동화
조음 방법 동화	바뀌는 음운의 조음 방법이 바뀌는 동화로 비음화, 유음화 등이 있다.
조음 위치 동화	바뀌는 음운의 조음 위치가 바뀌는 동화로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등이 있다.

1. 교체

(1) 비음화(교체 / 동화 /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ㅁ 앞	[ㅇ]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낭는다], 부엌문[부억문→부엉문]
ㄷ	ㄴ, ㅁ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걸모양→건모양], 쫓는[쫓는→쫓는]
ㅂ	ㄴ, ㅁ 앞	[ㅁ]	밥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2) 유음화(교체 / 동화 /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똥는 → [똥는 → 똥른]

(3)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ㄸ)'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달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2. 탈락

(1) 'ㅎ' 탈락 :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ㅎ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	[∅]	좋- + -아서 → [조:아서], 앉- + -은 → [아는], 꿇- + -이- + -고 → [꼬리고] [참고] 어간의 끝 자음 'ㄴ'이나 'ㄹ'의 'ㅎ'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한다.

3. 첨가

(1)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버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ㅇ'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선택지 해설]

14. ①

산림	산림 → [살림] 유음화
알약	알약 → 알낙 → [알락] ㄴ 첨가 유음화
붙이다	붙이다 → [부치다] 구개음화
달는	달는 → 달는 → [달른]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만이	만이 → [마지] 구개음화
저녁연기	저녁연기 → 저녁년기 → [저녕년기] ㄴ 첨가 비음화

정답해설 ㉠의 '산림[살림]'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면 'ㄴ+ㄹ'의 음운 환경에서 뒤의 음운 'ㄹ'이 앞의 음운 'ㄴ'을 바꾸는 역행 동화가 일어나. 또한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이 '윗잇몸소리이자 유음'인 'ㄹ'로 바뀌지. 이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거야. 정리하면 '산림[살림]'에서는 '역행동화'와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나지.

㉡의 '알약[알락]'에서는 우선 'ㄴ첨가'가 일어나서 '알낙'이 되고 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면 'ㄹ+ㄴ'의 음운 환경에서 앞의 음운 'ㄹ'이 뒤의 음운 'ㄴ'을 바꾸는 순행 동화가 일어나. 또한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이 '윗잇몸소리이자 유음'인 'ㄹ'로 바뀌지. 이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거야. 정리하면 '알약[알락]'에서는 '순행동화'와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나.

㉢의 '붙이다[부치다]'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면 'ㄷ+ㅣ'의 음운 환경에서 'ㄷ'이 'ㄷ'로 바뀌어. 'ㄷ'은 '윗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이며 'ㄷ'은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이야. 즉 'ㄷ'과 'ㄷ'로 바뀔 때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어. 이렇게 'ㄷ'을 'ㄷ'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ㅣ'야. 'ㅣ'는 자리가 'ㄷ, ㄷ'와 비슷해. 이에 'ㄷ, ㄷ'와 'ㅣ'가 만나서 발음하라면 너무 먼 거야. 그래서 'ㅣ'가 'ㄷ, ㄷ'를 자기와 가까운 모음인 'ㄷ, ㄷ'로 바꾸어 버려. 즉 'ㄷ+ㅣ'의 환경에서 뒤의 'ㅣ'가 앞의 'ㄷ'을 바꾸는 역행 동화가 일어나는 거야. 정리하면 '붙이다[부치다]'에서는 '역행동화'와 '조음 방법 동화 &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나.

㉣의 '닿는[달른]'에서는 우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ㅎ이 탈락하고 '달는'이 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면 'ㄹ+ㄴ'의 음운 환경에서 앞의 음운 'ㄹ'이 뒤의 음운 'ㄴ'을 바꾸는 순행 동화가 일어나. 또한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이 '윗잇몸소리이자 유음'인 'ㄹ'로 바뀌지. 이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거야. 정리하면 '닿는'에서는 '순행동화'와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나.

㉤의 '말이[마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면 'ㄷ+ㅣ'의 음운 환경에서 'ㄷ'이 'ㄷ'로 바뀌어. 'ㄷ'은 '윗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이며 'ㄷ'은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이야. 즉 'ㄷ'과 'ㄷ'로 바뀔 때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어. 이렇게 'ㄷ'을 'ㄷ'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ㅣ'야. 'ㅣ'는 자리가 'ㄷ, ㄷ'와 비슷해. 이에 'ㄷ, ㄷ'와 'ㅣ'가 만나서 발음하라면 너무 먼 거야. 그래서 'ㅣ'가 'ㄷ, ㄷ'를 자기와 가까운 모음인 'ㄷ, ㄷ'로 바꾸어 버려. 즉 'ㄷ+ㅣ'의 환경에서 뒤의 'ㅣ'가 앞의 'ㄷ'을 바꾸는 역행 동화가 일어나는 거야. 정리하면 '말이[마지]'에서는 '역행동화'와 '조음 방법 동화 &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나.

㉥의 '저녁연기[저녕년기]'에서는 우선 'ㄴ첨가'가 일어나서 '저녁년기'가 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면 'ㄴ+ㄴ'의 음운 환경에서 뒤의 음운 'ㄴ'이 앞의 음운 'ㄴ'을 'ㅇ'으로 바꾸는 역행 동화가 일어나. 또한 '여린입천장소리이자 파열음'인 'ㄴ'이 '여린입천장소리이자 비음'인 'ㅇ'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리하면 '저녁연기[저녕년기]'에서는 '역행동화'와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나.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산문 [22~26번 지문]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한인 아이들에게 낯설고 있다는 가치가 절실했지만 애견이 세로 눈만 볼 뿐 장문 내서했다는 사람은 없었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253p) #수능특강 사용설명서(p251)

[작품 '한 눈에 보기']

[전체 줄거리]

봉세관 강봉헌의 횡포로 인해 제주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프랑스 신부의 위세를 등에 업은 일부 천주교인들의 행패 또한 심해진다. 이에 반발하여 유생들과 토호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시위가 무력 충돌로 번지게 된다. 사태가 격화되면서 이 시위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관노 출신인 이재수가 지도자로 나서면서 제주 하층민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투쟁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프랑스 군함의 무력시위와 관군의 개입으로 한 달여의 투쟁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

[EBS 더 알아보기] 제주 거납 운동과 민중 항쟁

이 작품은 과도한 세 부담에 저항하여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거납 움직임이 **봉세관의 세폐(稅弊)**와 **천주교와 결탁한 세력의 교폐(敎弊)**로 대변되는 억압으로 인해 민중 항쟁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민중의 자발적 봉기와 반봉건 반외세 운동으로 성장하였으나, 외세의 개입 등으로 인해 좌절된 역사를 토대로 우리 역사의 일부를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현] 이재수의 난 그 민란의 배경인 '교폐'와 '세폐'

① 교폐(敎弊)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인들의 온갖 횡포
② 세폐(稅弊)	“봉세관을 팔에 보세 세금을 대꾸러 세금을 지는 귀한 귀한 소부 한 그루에도, 따를 기문 집에도 세를 붙여, 어찌 소가 안 일 아니겠습세? 무서 무서 하세 세비 많은 재세마 큰 새끼래는 천재적 애부년 동안 위 전수생민 재세마곤 없습다.” ⇒ 봉세관 강봉헌의 가혹한 세 징수, '지세'와 '삼림세'를 신설

[작품 구조]

- 이 작품은 조선 말 제주에서 일어난 방성철의 난과 이재수의 난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으로, 세(稅) 거부에서 비롯된 민란이 반봉건, 반외세의 민중 의거로 변화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역사 소설이다. 제주 백성의 수난사를 다룬 제1장, 제주 민란에 대한 증언과 방성철의 난을 다룬 제2장~제8장, 신축 제주 항쟁(이재수의 난)을 다룬 제9장~제16장, 후일담 성격의 제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제2장~제8장	제9장~제16장 [EBS & 한교평 수록부분]	제17장
제주 백성의 수난사	방성철의 난 (민란에 대한 증언, 후일담)	이재수의 난	후일담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19세기 말 제주도에서는 천주교가 프랑스의 비호를 받으며 득세하였다. 일부 교인들은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봉세관과 결탁하여 제주도민들을 수탈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았다. 이에 상무사를 조직한 유생들은 교인들에게 저항하는 민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이재수의 난’이라 한다. 민란이 진압된 후 프랑스 정부는 천주교 신부들을 비롯한 교인들의 죽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우리 정부는 민란의 주동자들을 처형하였다.	
<보기> point	• 봉세관들의 가혹한 징세, 그리고 교인들이 이와 결함함으로써 더 가혹해진 횡포와 이에 맞선 민란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를 보면 쉽게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상무사의 회민들은 오 좌수를 장두로 추대하여 천주교인들(교당)의 횡포에 맞서던 중 교당의 기습을 받게 된다.

그날 밤, 도망가던 회민들 가운데서 새로운 장두가 솟아났다. 그가 바로 상무사 간부로 유일하게 남은 강우백이었다. 차마 죽을 용기를 못 내고 구차하게 종일 회민들 속에 끼여 이리 물리고 저리 쏘려 다니던 그가 교당이 총으로 인명을 살상하기에 이르자,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상무사 집사인 이재수와 조사성이 이끄는 젊은 패거리 수십 명은 즉시 횃불을 밝혀 들고 장두 강 별감을 겁없이 에워싸는 일방, 어둠 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갈팡질팡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다.

“새로 장두가 나오셨다!”

(중략)

모두들 송구스러워 머리를 조아리는데 강별감이 이번엔 목소리를 가라앉혀 은근히 호소하기를, “그러니 장두가 둘이 필요합네다. 동진을 내가 맡는다 하고, 서진을 맡을 장두는 여러분 중에서 나와 주셔야 합니다.”

이 말에 좌중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이 없었다.

㉮ 장두

민란에 얽여 있는 탓에 장두를 얼핏 장수와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장두는 장수(將帥)가 아니라 그들이 움직인 이유 및 요구를 적는 소(訴) 따위에 첫 번째로 이름이 오르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민란엔 난민들은 살자로 장두는 반드시 죽는 거야. 아아, 장두·모사(謀士)·집사(執事)들이 관덕정 마당에 작두칼로 목 베려 죽는 거야.”

위 발화는 본 작품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장두로 나서는 사람은, 제주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필히 죽는 것으로 이미 인식된 상태**이므로 장두로 나서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강 별감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감히 낮을 못 들고 한숨만 꺼질 듯 몰아쉬었다. 얼마간 안쓰러운 침묵이 흐르는데 강 별감 뒤에 있던 이재수가 불쑥 나왔다. 키는 작달막하나 가슴팍이 떡 벌어진 게 여간 다부진 몸매가 아니었다.

“별감 어른, 소인은 어떠하우파? 소인을 써 주신다면 이 천한 목숨 내던져 힘껏 싸워 보겠습니다만.”

갓전이 땅에 닿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동소임*들은 그제야 얼굴을 들었다. 나이도 어린 하인 신분에 당돌하게 백성의 장두가 되겠다니, 모두들 난처하다는 듯이 고개를 모로 꼬았다. 그러나 역시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두려운 것, 하인 아이눔에게 능멸당하고 있다는 가책이 절실하였지만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볼 뿐 장두로 나서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좌중이 썩 내키지 않는 기색이자, 재수는 대뜸 비분강개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소인이 미천한 관노라고, 옳을 의(義) 자를 위해 죽지도 못합니까? 난신적자(亂臣賊子)*를 토멸하는 데 어찌 반상의 구별이 있습니까?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관노 신분에 가당치 않다면 관노가 상전을 위해 죽는 것도 안 됩니까? 잡혀간 오좌수 어른은 소인이 다년간 받들어 모신 상전이우다. 소인은 좌수 어른의 원수를 꼭 품앗이*하고야 말겠소!”

이 말 끝에 재수는 울분을 못 참고 강 별감 앞에 풀썩 엎으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장두 어른, 소인의 천한 목숨 바쳐 올리니 부디 거두어 저 불쌍한 백성을 위하여 제단에 희생물로 삼아 주십시오!”

좌중은 일시에 숙연해졌다. 모두들 재수의 조리 있는 언변에 놀랐다. 오죽 담차고 영민했으면 채 군수가 통인으로 데렸을까! 오죽 용력이 뛰어나면 상무사 집사가 되었을까! 모두들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입꼬리가 위로 휘어지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강 별감이 갑자기 자리 차고 일어났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니 과연 그렇소! 이번 거사는 다름 아닌 의병을 일으킴에 이른즉 민회와는 달리 반드시 용력이 뛰어나고 날랜 장두가 나와야 하겠소! 유림(儒林)을 대표해서 내가 나섰으니, 다른 장두는 이 용맹스러운 젊은이를 내세움이 좋을 듯하오. 이 청년은 이미 이번 민회에 집사로서 크게 활약했던바 내 보기에 능히 장두에 값할 만한 인물이오. 자, 어쩡소, 상무사 집사 이재수를 장두에 추대합시다!”

“종소!”

모두들 흔쾌히 승낙하면서 요란하게 박수를 쳤다.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 동소임: 동네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 난신적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

* 품앗이: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여기서는 되갚음의 뜻.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재팬'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p>이 작품은 1900년을 전후로 일어났던 제주도의 방성칠란과 신축 제주 항쟁(이재수의 난)을 다룬 역사 소설이다. 프롤로그구실을 하는 1장, 방성칠란과 후일담을 담고 있는 2~8장, 신축 제주 항쟁을 다루고 있는 9~16장, 후일담 성격의 1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세금 문제로 인해 일어난 방성칠 무리의 봉기와 좌절, 봉세관(封稅官)의 횡포와 천주교 포교로 인한 제주 민중의 고통, 이재수의 항쟁과 좌절 등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반봉건적, 반외세적 차원의 운동이었던 제주도의 항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tip 1] 방성칠 난 무술년에 남학당이 주축이 되어 탐관오리인 제주목사 이병휘를 축으로 한 세폐 거납운동(세금 따위를 내는 것을 거절하는 운동)을 벌였다. 방성칠은 제주성을 점령하고 유배객을 중점으로 독자적인 국가인 별국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토착세력으로 이루어진 반군에게 다시 제주성을 빼앗기고 일본군에 소속되려 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신뢰를 잃고 결국 처형 당했다.</p> <p>[tip 2] 방성칠 난과 이재수의 난 모두 세금 문제가 봉기의 이유가 됐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재수의 난은 방성칠 난과 다르게 반외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두 난에서 가장 구별되는 점이다. 또한 방성칠은 비범한 인물이긴 하지만 끝내 민중을 배신하고 붙잡혀 죽은 사이비 장두 정도로, 이재수는 민중의 욕망을 대신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민중의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큰 차이다.</p> </div>
주제	이재수의 항쟁과 좌절
EBS 사용설명서, 「이것만은 꼭!」	
<p>[포인트1] 서술상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현실을 인물 간의 논쟁에 반영함으로써 구체성과 사실성을 높임.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제시함.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p>[포인트2] 갈등의 양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의 이권이 외세에 의해 침탈되는 현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나기주</p> <p>외세의 침탈에 의해 부족해진 국가의 재정을 세(稅)로 보충하는 현실임.</p> <p>“아문 저 외세들이 다 쳐내 버렸으니 때때로 국가 재정을 무력으로 메꾸니까? 오로지 할것 주권 백성들의 고통을 배려 국재세를 서무고 왕실 비용을 충당하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 <p>이견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최 주사</p> <p>• 외세의 침탈에 편승하여 조정대신이 사용을 챙김. • 제주에 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세 등 세금의 명목으로 수탈이 자행됨.</p> <p>“조정 것들은 외국에 아물 넘겨주고 국전 행하는 개판에 불과하오” “지세 대신 징상물을 꺾박꺾박 비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지세까지 내라니, 이런 부당한 해가 어디 있습니까?”</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 (민회의 소집)</p> </div>	

고전시가 [43~45번 지문] [안도환, '만언사답']

“어와 손님네야 마음을 고쳐먹어 죽한 말 다시 말고 살아 할 일 해어 보소 손님 풀러 올라갈 제 서울 귀경 나도 가세”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p157)

[작품 '한 눈에 보기] “이러할 조금 돕는 정도로 개방계”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 유배객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볼 것을 권함.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나의 말씀 들어 보소” • 본사 본사 1: 유배 생활의 힘들도 변할 것임. [EBS 수록]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을 하오시니 사시절에 한서 온랭(寒暑溫冷) 돌아오니...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변화하다 괴성한들 지런 괴성 계속할까” 본사 2: 유배 생활이 힘들다고 죽는 이는 없음. [EBS 수록] “망해투사 하려는가 불식이사 하려는가 자물이사 하려는가 음독이사 하려는가 설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이 되고 귀양 가서 다 죽으면 섬 유배객 뉘 있들까” 본사 3: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힘들. [EBS 수록] “이 병 저 병 천만 병 중 그리운 상사병이 첫 번째라 천 리 타향 혈혈한데 한술 물을 뉘 떠 주며 화타편작(華陀扁鵲) 다시 산들 손님 병은 어쩔 수 없네” 본사 4: 유배지를 떠나 귀경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희망을 줌. [한교평 수록] “어와 손님네야 마음을 고쳐먹어 죽한 말 다시 말고 살아 할 일 해어 보소 손님 풀러 올라갈 제 서울 귀경 나도 가세 강가에 배 닿을 제 무슨 배를 대알고” • 결사: 유배에서 풀려나 꿈이 실현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말함. [한교평 수록] “이때 괴성 이 설운을 잊지 말고 외왔다가잔 잡고 웃으면서 옛 말음 하오실 제 그때 내 말 생각하고 향풍(鄕風)* 뉘다 하오시리” 	<p>주제 유배지에서 느끼는 서러움과 신세 한탄</p>
[만언사 & 만언사답 II EBS 풀이 비교]	
<p>만언사 (수능특강 57P & 한교평 1회 수록)</p>	<p>이 작품은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되는 과정과 유배지에서의 시련과 고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등을 노래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배 가사이다. 당시에는 죄인이 유배를 가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집에서 잠자리며 먹거리를 해결해야 했는데, 백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유배 온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큰 곤욕이었다. 화자 역시 추자도에 거주하는 한 백성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죄를 짓고 유배를 온 화자가 양식을 보태지는 못 할망정 허구한 날 신세타령만 한다면 구박한다. 화자는 이러한 집주인의 태도에 원통하고 분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집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동냥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유배 생활의 고난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만언사」의 여러 이본에서는 작가가 ‘안조환’, ‘안조원’, ‘안도환’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의 작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현재는 ‘안도환’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p>
<p>만언사답</p>	<p>이 작품은 작가가 쓴 「만언사」의 후편이라 평가받는 노래이다. 첫머리에 ‘설운 말’을 늘어놓는 ‘손님네’는 「만언사」의 화자인 셈이고, ‘광부’는 유배지의 이웃이자 이 작품의 화자인 가공의 인물인 셈이다. 그런데 작가 자신이 지은 노래에 대해 자신이 다시 답을 하는 형식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작가의 서럽고 힘든 사정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에게서 위로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 취향의 관념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참으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가공의 화자가 작가를 위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p>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안도환의 「만연사답」은 유배 생활의 고통과 절망을 토로하는 「만연사」에 대해 회답하는 답가이다. 유배지의 주민이 유배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작품은, 유배객이 풀려나 서울로 돌아가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상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며 유배지에서 풀려나길 바라는 해배(解配 : 귀양을 풀어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를 보면 명치 ‘진짜’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어와 손님네야 마음을 고쳐먹어
 죽잔 말 다시 말고 살아 할 일 헤어 보소
 손님 풀려 올라갈 제 서울 구경 나도 가세
 강가에 배 닿을 제 무슨 배를 대일런고
 독대선에 황대선에 먼정이에 대중선에
 어망선에 거북선에 장도리한 거도선에
동서남북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부을는고
높바람에 늦바람에 하늬바람 마파람에

Tip 작품의 화자는 유배객인 손님이 해배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높바람 늦바람 하늬바람 등의 시어에는 ‘유배객이 해배되어 서울로 돌아간다는 상황’으로 미뤄보아 기대감이나 설렘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화자는 유배객이 아니며 유배객의 반응은 표면상 드러난 바가 없다. 다시 말해 이 상황과 바람들을 상상하는 것은 유배객이 아닌 화자이므로 **화자의 기대감이나 설렘이 드러나는 것이지 유배객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바람 부지 말고 남병산 칠성단*에
 제갈공명 비던 바람 동남으로 일어나서
 반공(半空)에 뜬 구름을 서북으로 이동할 제
 지국총* 배 띄워라 어사와* 돛 달아라

(중략)

올 제 울고 보던 뒀을 오늘 웃고 보리로다
 기쁜 흥 못 이기어 명산대찰 찾으실 제
 배진의 달마산은 미황사가 대찰이요
 영암의 월출산은 도갑사가 큰 절이라
 주현군읍 지나가며 남방 풍경 열람하니
 건지산을 다시 보고 계룡산을 고쳐 지나
 경기 남산 반가와라 손님 보고 마조 웃네
 동작강 배 저어라 십 리 사장 얼른 지나
 돌모로 지나치고 청파 다리 너머 들어
 송례문 들어가니 오색구름 어린 곳에
 기린 봉황 넘노는 듯 서기(瑞氣) 반공(蟠空) 응상궐(凝象闕)*
주야불망(晝夜不忘) 바라면서 그리던 곳 아니런가

천세(千歲) 불러 고두(叩頭)*하고 만수무강 축수하네

㉮ 작품의 화자는 유배객이 해배되어 송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 서울로 돌아와 유배객이 하는 첫 번째 행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화자는 유배객이 돌아와 임금께 '만수무강 축수'하는 충정의 모습을 처음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배객이 해배된 것은 상상의 모습일 뿐이며 현실은 여전히 유배의 상황이라는 점, 화자의 모습 역시 작가의 소망이 투영된 인물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장면은 **작가가 임금에 대한 충정을 보임으로써 해배에 대한 소망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안 시장 즐비하고 태평 변화 신기롭다
 방방곡곡 찾아들어 손님 집이 여기로다
 부모처자 마조 나와 손을 잡고 반겨하니
 울음 끝에 웃음 나고 지난 고생 허사로다
 갈충보국(竭忠報國)* 힘을 쓰니 부모 봉양 절로 된다
 백부 은혜 잊지 말고 귀한 아들 성취하여
조강지처 한가지로 영화 부귀 누리실 제
이때 고생 이 설움을 잊지 말고 외왔다가
잔 잡고 웃으면서 옛 말씀 하오실 제
 그때 내 말 생각하고 향풍(鄉風)* 읊다 하오시리
 이 말 저 말 시골말이 열 되들이 정말이라

- 안도환, 「만언사담」 -

* 남병산 칠성단: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일으키고자 기도를 드리기 위해 쌓았다는 제단.

* 지국충: 배에서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어사와: 어여차. 여럿이 힘을 합할 때 일제히 내는 소리.

* 서기 반공 응상궐: 상서로운 기운이 대궐에 서려 있음.

* 고두: 공경의 뜻으로 머리를 조아림.

* 갈충보국: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음.

* 향풍: 시골의 풍속. 여기서는 화자와 같은 시골 사람의 말.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재'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수능완성 핵심 문제(p158 44번)	
<보기1>	<p>시가 문학 중에는 특정 작품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다. 애초의 특정 작품을 본가라고 할 때 답가는 본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상이나 상황, 정서 등을 연계하여 창작된다. 또한 본가와 답가를 지은 사람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답가의 화자는 결국 작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기 2>는 윗글의 본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화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유배 생활의 어려움, 유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담고 있다.</p>
<보기2>	<p>평생 일심 원하기를 충과 효를 온전히 하겠더니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겠다 후회가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엇 하리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어디서 녹을 먹는 신하가 죄짓자 하라마는 대액이 앞에 도달하니 눈조차 어둡구나 마른 쇠를 등에 지고 열화에 뛰어든 것이로다 재가 된들 뉘 탓이리 살 가망 없다마는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섬으로 보내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상년에 배던 보리 올해 고쳐 배어 먹고 지난여름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슴 막혀 못 먹으니 뛰던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라 설위함도 남에 없고 못 견뎌도 남과 다르니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 년이라 흥즉길함 되려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꼬</p> <p style="text-align: right;">- 안도환, 「만언사」 -</p>
발문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답가)과 <보기 2>(본가)를 엮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p>① 답가의 '설운 말 그만하'라는 말은, 본가의 '설위함도 남에 없고 못 견뎌도 남과 다르'다고 하는 말을 받는 방식으로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p> <p>② 답가의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쏜가'는, 본가의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에 담긴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과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p> <p>③ 답가의 '저런 고생 계속할까'는, 본가의 '흥즉길함 되려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꼬'에 담긴 유배 생활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p> <p>④ 답가의 '손님 얼굴 보아하니 피골상련하였으니'는, 본가의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슴 막혀 못 먹으니'에 담긴 내적 고뇌와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p> <p>⑤ 답가의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제'는, 본가의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에 담긴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과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p>
정답 해설	<p>⑤ 답가의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제'는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가의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는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살려 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이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연계된 표현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p>

[한글 불 문제] 안도환, 만언사(2015학년도 4월 교육청 A/B 공통)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자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A]

저 주인의 거동 보쇼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느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느고
 밥 싹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짚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트니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데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돌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불러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한출침배(汗出沾背) : 땀이 나와 등을 적심. / * 종이노 : 종이를 꼬아 만든 끈.

* 자리노 : 명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 *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퍼하며 원망함.

[1~2] 윗글과 <보기1>, <보기2>를 바탕으로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1 〉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윗글에서의 고통 받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보기 2 〉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人間)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고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웁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하추동 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가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번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 「만언사답(萬言詞答)」-

1.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2>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고는 행위는 <보기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2>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2. <보기 1>의 ㉠~㉢를 고려하여 [A]의 양반과 <보기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반은 청자를 훈계하고 있고, ㉠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양반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양반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반과 ㉠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양반과 ㉠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1. ③**

정답해설 : 사실관계 판단이다. 지문 돌아가서 따져보면 화자는 '손가락'이 부르터서 하릴없이 내려놓았다. 이것은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지,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기 2>에서 '변화'를 겪은 것은 처지가 바뀐 것을 의미할 텐데, 처지가 바뀐 적도 없다.

2. ②

정답해설 : 청자와 화자만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면 된다. 만연사답'은 '만연사'에 대해 화답의 방식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A]의 '양반'은 '코웃음에 비웃음'을 보이는 '주인'의 행위에 대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와 같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2>의 '나'는 자연 현상 등의 예를 통해 청자의 상황을 위로하고 있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과학[31~35번 지문][물질의 연소에 관한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날 화학 혁명은 17.18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물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정립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된다. 화학 혁명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는 물질의 연소에 관한 이론으로서 플로지스톤 이론이 산소 이론으로 대체된 사건이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플로지스톤은 ‘불의 원리’와 같은 원소로, 불에 잘 타는 물질일수록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여 재로 변하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금세 빠져나간 탓이다. 광택이 나는 금속이 녹슬어 푸석푸석한 금속회로 변하는 것도 플로지스톤이 서서히 빠져나간 결과이다. 양초에 불을 붙여 밀폐된 유리병 속에 넣으면 금방 불이 꺼지는데, 이는 유리병이 플로지스톤으로 금세 포화되어 더 이상의 플로지스톤 방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속회를 숯과 함께 가열하면 광택이 나는 금속이 얻어진다. 이는 금속회가 숯에 있던 플로지스톤을 빼앗아 다시 금속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물질의 연소와 녹슬은 모두 ‘산화’로, 금속회가 다시 금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환원’으로 여겨졌다.

18세기에 프리스틀리는 공기 중의 플로지스톤을 활용해도 금속회의 환원 반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은을 연소시켜 마련한 수은회를 밀폐된 유리병에 넣고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했다. 그러자 수은회가 수은으로 환원되면서 어떤 기체가 발생했다. 그는 수은회가 유리병 속 공기에 함유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을 흡수하고 ‘플로지스톤이 걸땀된 공기’를 방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기체를 포집하여 밀폐된 유리병에 담고 그 안에 불을 붙인 양초를 넣었다. 양초는 보통의 공기 속에서보다 더 오랫동안 잘 탔다. 이는 공기에 함유된 플로지스톤이 적을수록 플로지스톤이 포화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의 예측과 맞아떨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재현하면서, 반응 전의 물질인 반응물과 반응 후의 물질인 생성물의 질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수은이 수은회로 바뀔 때는 그 질량이 증가하고 밀폐된 용기 속의 공기 질량은 그만큼 감소했다. 반대로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뀔 때는 그 질량이 감소하고 공기 질량은 그만큼 증가했다. 질량의 변화를 물질의 출입으로 해석한 라부아지에는 수은이 공기 중의 X와 결합하여 수은회가 되고, 수은회는 X를 방출하고 다시 수은이 된다고 주장했다. 라부아지에는 X를 ‘산소’라고 명명했고, 연소와 녹슬이 모두 산소와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산화는 산소와의 결합이고, 환원은 산소의 방출이었다.

한편 금속을 산(酸)에 녹이면 기체가 생기는데, 이 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 ‘가연성 공기’로 불렸다. 프리스틀리는 바로 이 기체가 플로지스톤이라고 생각했다. 금속회를 산에 녹일 때는 그 기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연성 공기를 모은 유리병에서도 수은회가 원활하게 환원되었는데, 이는 수은회의 환원 반응이 플로지스톤과의 결합이라는 생각과 부합했다.

당시 가연성 공기는 연소할 때마다 물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라부아지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가연성 공기를 모은 밀폐된

유리병에 수은회를 넣어 고온으로 가열하면, 수은회 속의 산소가 빠져나가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면서 수은과 함께 물이 생성될 것이다. 실험 결과 라부아지에의 예측대로 유리병의 마른 바닥에 물이 고였다. 그러자 캐번디시는 가연성 공기를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로 해석하고 라부아지에가 말한 산소를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플로지스톤 이론을 방어하였다.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은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 플로지스톤 이론은 금속의 몇 가지 공통 성질을 플로지스톤이라는 공통 성분을 통해 설명하고,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방출되는 이유도 플로지스톤의 방출로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과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 왜 꼭 1:8의 질량 비율로만 섞여야 물이 생성되는지는 해명하지 못했다. 반면 산소 이론은 물이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합성된 화합물이고 세 물질의 질량 비율이 항상 9:1:8임을 밝힘으로써 물 합성 반응의 고정 비율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의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함에 따라 물질 연소 시 열이 방출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했고, 다양한 금속들을 별개의 원소로 취급함으로써 그 공통 성질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플로지스톤 이론이 산소 이론으로 교체된 것은 우연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연에 의해 화학은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학문에서 물질의 구성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화학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날 화학 혁명은 17.18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물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정립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된다. 화학 혁명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는 물질의 연소에 관한 이론으로서 플로지스톤 이론이 산소 이론으로 대체된 사건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1문단이니 천천히 읽어야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참 외닿지 않습니다. '물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다음 문장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물질의 연소'에 관한 이론이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산소 이론'으로 대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물질의 연소] : '플로지스톤 이론' ----->(화학 혁명)-----> '산소 이론'
- 두 개의 이론을 대립시키면서 내용을 전개하겠다고 하네요. '공/차'를 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플로지스톤은 '불의 원리'와 같은 원소(C)로, 불에 잘 타는 물질일수록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여 재로 변하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금세 빠져나간 탓이다. 광택이 나는 금속이 녹슬어 푸석푸석한 금속회로 변하는 것도 플로지스톤이 서서히 빠져나간 결과이다. 양초에 불을 붙여 밀폐된 유리병 속에 넣으면 금방 불이 꺼지는데, 이는 유리병이 플로지스톤으로 금세 포화되어 더 이상의 플로지스톤 방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속회를 숯과 함께 가열하면 광택이 나는 금속이 얻어진다. 이는 금속회가 숯에 있던 플로지스톤을 빼앗아 다시 금속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물질의 연소와 녹슬은 모두 '산화'(C)로, 금속회가 다시 금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환원'(C)으로 여겨졌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하나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문단입니다. '플로지스톤'의 개념부터 챙기시다. '플로지스톤'은 일종의 '원소'인데 두 가지 양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연성 물질 연소 =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
(2) 금속(녹슬) → 금속회 =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것

- ② '금속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문 설명에 따라 '녹슨 금속'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③ '물질의 연소'는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더 이상 플로지스톤을 방출할 수 없게 되면 연소가 멈춥니다.

'밀폐된 유리병 속에서 양초 '연소' = 플로지스톤 방출 → 플로지스톤 포화 상태 도달 → 양초 꺼짐'

- ④ 여기까지는 플로지스톤의 방출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한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플로지스톤의 흡수에 대한 내용이군요.

(1) 금속(녹슴) → 금속회 =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것

(2) 금속회(가열) → 금속 = 플로지스톤을 흡수한 것

'금속 = 플로지스톤 有 / 금속회 = 플로지스톤 無' 정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⑤ 문단 마지막에서 용어를 정해줍니다. 앞에서 읽은 내용과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 연소, 녹슴 = '플로지스톤 방출' = [산화]

• 금속회 → 금속 = '플로지스톤 흡수' = [환원]

18세기에 프리스틀리는 공기 중의 플로지스톤을 활용해도 금속회의 환원 반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은을 연소시켜 마련한 수은회를 밀폐된 유리병에 넣고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했다. 그러자 수은회가 수은으로 환원되면서 어떤 기체가 발생했다. 그는 수은회가 유리병 속 공기에 함유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을 흡수하고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를 방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기체를 포집하여 밀폐된 유리병에 담고 그 안에 불을 붙인 양초를 넣었다. 양초는 보통의 공기 속에서보다 더 오랫동안 잘 탔다. 이는 공기에 함유된 플로지스톤이 적을수록 플로지스톤이 포화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의 예측과 맞아떨어졌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읽은문단에서 설명했던 '양초 실험' 그리고 '금속회(가열) → 금속' 실험과 연결되는 내용이니, 자연스럽게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다만 2문단의 '금속'만 '수은'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② 연결해봅시다. 수은회를 가열하면 플로지스톤을 흡수하면서 수은이 되는데, 이때 '어떤 기체'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기체'는 다음 문장의 표현에 따르면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입니다.
 ③ 이 공기는 보통의 공기와 달리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기로 채워진 유리병 안에서 양초를 태우면 그냥 공기로 채워진 유리병 안에서 양초를 태울 때보다 더 오래, 잘 타게 됩니다.
 ④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양초가 '연소'한다는 것은 플로지스톤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병 안에서 양초가 무한히 타지 못하는 이유는, 유리병 안에 플로지스톤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양초가 플로지스톤을 방출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양초가 더 오래 탔다는 것은, 유리병 안에서 더 많은 플로지스톤을 방출할 수 있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⑥ [함유된 플로지스톤의 양 : 플로지스톤 결핍 공기 < 그냥 공기]이고, 공기에 함유된 플로지스톤의 양이 적을수록 양초를 더 오래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재현하면서, 반응 전의 물질인 반응물과 반응 후의 물질인 생성물의 질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수은이 수은회로 바뀔 때는 그 질량이 증가하고 밀폐된 용기 속의 공기 질량은 그만큼 감소했다. 반대로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뀔 때는 그 질량이 감소하고 공기 질량은 그만큼 증가했다. 질량의 변화를 물질의 출입으로 해석한 라부아지에의 수은이 공기 중의 X와 결합하여 수은회가 되고, 수은회는 X를 방출하고 다시 수은이 된다고 주장했다. 라부아지에의 X를 '산소'(O)라고 명명했고, 연소와 녹슴이 모두 산소와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산화는 산소와의 결합이고, 환원은 산소의 방출이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라부아지에'는 위의 실험에서 '질량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 ② [수은 → 수은회] : 수은 질량 증가 / 공기 질량 감소
 [수은회 → 수은] : 수은 질량 감소 / 공기 질량 증가
- ③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라부아지에'는 '질량의 변화'를 '물질의 출입'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질량의 감소는 물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질량의 증가는 물질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은 → 수은회]의 상황에서 수은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은회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공기의 질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공기에서 '어떤 물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 ④ 이 '어떤 물질'을 라부아지에는 '산소'라고 명명했습니다.
- ⑥ 정보량이 꽤 많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문단 '프리스틀리'의 주장과 4문단 '라부아지에'의 주장이 각각 '플로지스톤 이론', '산소 이론'에 대응하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리스틀리	라부아지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녹슴 = '플로지스톤 방출' = [산화] • 금속회 → 금속 = '플로지스톤 흡수' =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녹슴 = '산소 흡수' = [산화] • 금속회 → 금속 = '산소 방출' = [환원]

'플로지스톤 / 산소', '흡수 / 방출'의 차이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금속을 산(酸)에 녹이면 기체가 생기는데, 이 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 '가연성 공기'로 불렸다. 프리스틀리는 바로 이 기체가 플로지스톤이라고 생각했다. 금속회를 산에 녹일 때는 그 기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연성 공기를 모은 유리병에서도 수은회가 원활하게 환원되었는데, 이는 수은회의 환원 반응이 플로지스톤과의 결합이라는 생각과 부합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금속을 '산'에 녹이면 기체가 생기는데,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라고 합니다. '가연성 공기'는 '가연성'인 만큼 불에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 ② 프리스틀리는 이 기체가 플로지스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금속회를 산에 녹일 때는 그 기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2문단에서 정리했던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금속 = 플로지스톤 有 / 금속회 = 플로지스톤 無'
 즉 프리스틀리에 따르면 금속회는 플로지스톤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속회를 산에 녹인다고 해도 가연성 공기, 즉 플로지스톤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속을 녹였을 때는 나오는데, 금속회를 녹일 때는 나오지 않는다? 가연성 공기가 바로 플로지스톤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당시 가연성 공기는 연소할 때마다 물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라부아지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가연성 공기를 모은 밀폐된 유리병에 수은회를 넣어 고온으로 가열하면, 수은회 속의 산소가 빠져나가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면서 수은과 함께 물이 생성될 것이다. 실험 결과 라부아지에의 예측대로 유리병의 마른 바닥에 물이 고였다. 그러자 **캐번디시**는 가연성 공기를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로 해석하고 라부아지에가 말한 산소를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플로지스톤 이론을 방어하였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채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살짝 어려워집니다. ‘라부아지에’와 ‘캐번디시’가 설명하고자 했던 상황은 ‘가연성 공기 연소 → 물 생성’의 상황입니다.
- ② ‘캐번디시’는 ‘플로지스톤 이론’을 방어한 인물이니, ‘프리스틀리’와 같은 팀이겠군요. 결국 여기도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의 의견 대립입니다.
- ③ 먼저 ‘산소 이론’입니다. ‘라부아지에’는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공기가 담긴 유리병에 수은회를 넣고 가열해서 수은으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산소 이론’에 따르면 수은회가 환원될 때는 산소가 방출되므로, 이 산소가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성공했네요.
- ④ 다음으로 ‘플로지스톤 이론’입니다. ‘캐번디시’는 가연성 공기가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프리스틀리’와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기억나나요? ‘프리스틀리’는 가연성 공기를 플로지스톤이라고 생각했었지요.
- ⑥ 다시 가보겠습니다. ‘캐번디시’는 또한 산소를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했어도 충분하기는 한데, 분석의 과정이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캐번디시’의 입장에서 ‘가연성 공기’가 ‘연소’되면서 ‘물’이 생성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 ⑦ 그에 따르면 가연성 공기는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입니다. 앞의 프리스틀리 실험에서 공기 중에서 수은회를 가열할 때 수은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했다고 나오지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플로지스톤이 흡수되어 수은이 생성되지요. 그런데 플로지스톤이 ‘과잉’되어 있다고 하니 전부 흡수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의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앞의 프리스틀리 실험에서 수은회를 가열하면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런데 캐번디시는 이것을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것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물’이 생성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은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 플로지스톤 이론은 금속의 몇 가지 공통 성질을 플로지스톤이라는 공통 성분을 통해 설명하고,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방출되는 이유도 플로지스톤의 방출로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과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 왜 꼭 1:8의 질량 비율로만 섞여야 물이 생성되는지는 해명하지 못했다. 반면 산소 이론은 물이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합성된 화합물이고 세 물질의 질량 비율이 항상 9:1:8임을 밝힘으로써 물 합성 반응의 고정 비율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의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함에 따라 물질 연소 시 열이 방출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했고, 다양한 금속들을 별개의 원소로 취급함으로써 그 공통 성질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플로지스톤 이론이 산소 이론으로 교체된 것은 우연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연에 의해 화학은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학문에서 물질의 구성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화학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채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단인데, 지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문을 읽으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만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플로지스톤 이론 장단점	장점	1) 금속의 공통 성질 설명 가능 2)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방출되는 이유 설명 가능
	단점	1) 물 합성 고정 질량 비율 설명 불가능
산소 이론 장단점	장점	1) 물 합성 고정 질량 비율 설명 가능
	단점	1) 금속의 공통 성질 설명 불가능 2)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방출되는 이유 설명 불가능

- ② 지문에서의 표현은 조금씩 바뀌지만, 정리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위와 같이 두 이론의 장단점이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표현들에 현혹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용이 보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 플라지톤 이론 VS 산소이론,
프리스트리, 케번디시 VS 라부아지에
+ 실험 결과와 연관 짓기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3-① ←

오늘날 화학 혁명은 17·18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물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정립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된다. 화학 혁명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는 물질의 연소에 관한 이론으로서 플로지스톤 이론이

33-② ←

산소 이론으로 대체된 사건이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플로지스톤은 불의 원리와 같은 원소로, 불에 잘 타는 물질일수록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여 재로 변하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금세 빠져나간 탓이다. 광택이 나는 금속이 녹슬어 푸석푸석한 금속회로 변하는 것도 플로지스톤이 서서히 빠져나간 결과이다. 양초에 불을 붙여 밀폐된 유리병 속에 넣으면 금방 불이 꺼지는데, 이는 유리병이 플로지스톤으로 금세 포화되어 더 이상의 플로지스톤 방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속회를 숯과 함께 가열하면 광택이 나는 금속이 얻어진다. 이는 금속회가 숯에 있던 플로지스톤을 빼앗아 다시 금속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물질의 연소와 녹슬은 모두 산화로, 금속회가 다시 금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환원으로 여겨졌다.

31-④ ←
35-⑤

18세기에 ① 프리스틀리는 공기 중의 플로지스톤을 활용해도 금속회의 환원 반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은을 연소시켜 마련한 수은회를 밀폐된 유리병에 넣고 불룩 렌즈로 햇빛을 모아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했다. 그러자 수은회가 수은으로 환원되면서 어떤 기체가 발생했다. 그는 수은회가 유리병 속 공기에 함유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을 흡수하고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를 방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기체를 포집하여 밀폐된 유리병에 담고 그 안에 불을 붙인 양초를 넣었다. 양초는 보통의 공기 속에서보다 더 오랫동안 잘 탔다. 이는 공기에 함유된 플로지스톤이 적을수록 플로지스톤이 포화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의 예측과 맞아떨어졌다.

34-⑥ ←

비슷한 시기에 ②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재현하면서, 반응 전의 물질인 반응물과 반응 후의 물질인 생성물의 질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수은이 수은회로 바뀔 때는 그 질량이 증가하고 밀폐된 용기 속의 공기 질량은 그만큼 감소했다. 반대로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뀔 때는 그 질량이 감소하고 공기 질량은 그만큼 증가했다. 질량의 변화를 물질의 출입으로 해석한 라부아지에는 수은이 공기 중의 X와 결합하여 수은회가 되고, 수은회는 X를 방출하고 다시 수은이 된다고 주장했다. 라부아지에는 X를 산소라고 명명했고, 연소와 녹슬이 모두 산소와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산화는 산소와의 결합이고, 환원은 산소의 방출이었다. → 산소이론의 핵심

31-④ ←

한편 금속을 산(酸)에 녹이면 기체가 생기는데, 이 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 가연성 공기로 불렸다. 프리스틀리는 바로 이 기체가 플로지스톤이라고 생각했다. 금속회를 산에 녹일 때는 그 기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연성 공기를 모은 유리병에서도 수은회가 원활하게 환원되었는데, 이는 수은회의 환원 반응이 플로지스톤과의 결합이라는 생각과 부합했다. 당시 가연성 공기는 연소할 때마다 물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프리스트리

VS

라부아지에

- 플로지톤 이론
- 연소 & 녹슬: 산화 } 플로지스톤의
- 금속회 → 금속: 환원 } 이동
- 금속 환원될 때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 발생
- 가연성 공기 → 플로지스톤

- 산소이론
- 질량의 변화 = 물질의 출입
- 연소 & 녹슬 → 산소와의 결합
- 산화 = 산소와의 결합
- 환원 = 산소의 방출

알려져 있었다. 라부아지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가연성 공기를 모은 밀폐된 유리병에 수은회를 넣어 고온으로 가열하면, 수은회 속의 산소가 빠져나가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면서 수은과 함께 물이 생성될 것이다. 실험 결과 라부아지에의 예측대로 유리병의 마른 바닥에 물이 고였다. 그러자 ③ 케번디시는 가연성 공기를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로 해석하고 라부아지에가 말한 산소를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플로지스톤 이론을 방어하였다.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은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 플로지스톤 이론은 금속의 몇 가지 공통 성질을 플로지스톤이라는 공통 성분을 통해 설명하고,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방출되는 이유도 플로지스톤의 방출로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과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 왜 꼭 1:8의 질량 비율로만 섞어야 물이 생성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반면 산소 이론은 물이 가연성 공기와 산소가 합성된 화합물이고 세 물질의 질량 비율이 항상 9:1:8임을 밝혔으로써 물 합성 반응의 고정 비율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의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함에 따라 물질 연소 시 열이 방출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다양한 금속들을 별개의 원소로 취급함으로써 그 공통 성질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플로지스톤 이론이 산소 이론으로 교체된 것은 우연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연에 의해 화학은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학문에서 물질의 구성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화학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33-⑤

→ 33-③

→ 33-④

3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① 수은회를 산에 녹일 때에는 가연성 공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 → 지문 확인
- ② 프리스틀리는 실험 결과가 예측과 다르게 나오자 자신의 이론을 일부 수정했다. X → 지문에 언급 X.
- ③ 플로지스톤 이론은 금속보다 금속회의 질량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
- ④ 프리스틀리가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라고 생각한 것은 라부아지에가 '산소'라고 생각한 기체이다. ○ → 수은회를 가열하자 발생한 기체 (지문 확인)
- ⑤ 라부아지에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면서 질량이 변화한 것은 그 과정에 어떤 물질의 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 지문 확인
- ③: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금속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와서 금속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반적으로 금속이 금속회보다 질량이 커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32.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연소와 녹슬은 동일한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② 모든 금속은 하나의 공통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X → 플로지스톤에만 동의 (모든 금속은 플로지스톤을 포함)
- ③ 나무가 연소할 때에는 나무에서 어떤 성분이 방출된다. X
- ④ 금속이 녹슬 때에는 금속과 공기 중의 어떤 성분이 결합한다. X
- ⑤ 금속회는 숯 속에 포함된 어떤 성분과 결합하여 금속으로 환원된다. X

③: 플로지스톤 이론만 동의. 플: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므로 탔다 산: 연소는 산소와의 결합이므로 X

⑤: 플로지스톤 이론만 동의. 들: 금속의 어떤 성분? 플로지스톤

④: 산소 이론만 동의. 플: 녹슬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산: 녹슬은 산소와 결합하여 발생한다

33. '화학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 ① 화학 혁명은 다양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이다. ○
- ② 화학 혁명 기간에 물질의 연소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이 바뀌기도 하였다. ○ **플라지스톤 이론 → 산소이론**
- ③ 화학 혁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화학이 탄생한 것은 우연의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 ○
- ④ 화학 혁명은 화학이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학문에서 물질의 구성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변화한 과정이다. ○
- ⑤ 화학 혁명 기간에 플로지스톤 이론이 산소 이론으로 대체된 것은 물질의 연소 시 열이 방출되는 이유를 더 타당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X → **산소이론은 오히려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① ~ ④ : 지문확인

34. *프리스틀리의 관점에 따를 때,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㉔ **나시문단 참고해서 주장 확인**

<보 기>

㉔는 불을 붙인 양초를 보통의 공기가 담긴 밀폐된 유리병에 넣어 둔 상태를 나타내고, ㉔는 불을 붙인 양초와 수은회를 보통의 공기가 담긴 유리병에 넣은 다음 볼록 렌즈로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① (가)의 양초는 유리병에 플로지스톤이 포화되므로 꺼진다. X
- ② (나)의 수은회는 주위에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면서 수은이 된다. X
- ③ (가)와 (나)의 양초는 모두 유리병 속 공기에 함유된 플로지스톤을 흡수한다. X
- ④ (가)의 양초가 (나)의 양초보다 금방 꺼지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가 더 풍부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 X
- ⑤ (나)의 양초가 (가)의 양초보다 더 오래 타는 것은 수은회의 환원 반응이 유리병에 플로지스톤이 포화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나 (나)에는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공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성직 설명대로 (나)의 양초가 더 오래 타는 것. 지문확인**

구분, 각자의 주장 파악 중요 (중점)

35. 윗글을 참고할 때, ㉑~㉔의 견해를 중심으로 <보기>의 실험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㉑: 프리스틀리 ㉒: 케번디시 ㉓: 라부아지에 ㉔: 산소이론

<보 기>

화학자 X는 금속이 산에 녹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모은 밀폐된 유리병에 수은회를 넣고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 수은회를 고온으로 가열했다. 실험 결과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뀌면서 18g의 물이 생성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화학자 X는 수은회와 수은의 질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았다.

- ① ㉑은 <보기>의 실험에서 물이 생성된 것은 플로지스톤 이론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았겠군. X → **케번디시가 플로지스톤 이론을 '방어'하려고 한 걸로 보아 오히려 플로지스톤 이론에 유리한 실험 결과였을 것이다.**
- ② ㉒은 <보기>의 실험에서 수은회가 수은으로 바뀌면서 그 질량이 16g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 ③ ㉓은 <보기>의 실험에서 물이 생성된 것은 금속이 산에 녹을 때 발생하는 공기가 연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겠군. X
- ④ ㉔은 <보기>의 실험에서 물이 생성된 것은 가연성 공기에 플로지스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의 오류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했겠군. X
- ⑤ ㉔은 <보기>의 실험에서 수은회에서 방출된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과 유리병 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 섞여 물이 생성되었다고 추정했겠군. X

②: 산소이론에 따르면 물:가연성공기:산소의 비율이 9:1:8이기 때문에 물이 18g 생성되었다면 꼭꼭히 2를 곱해서 가연성공기는 2g, 산소는 16g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라부아지에의 실험에 따르면 수은회에서 방출한 산소의 질량 = 수은회→수은일 때 감소하는 산소의 질량 이므로 16g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포함될 것.

- ③: '가연성 공기' 자체를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산소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한 실험이다.
- ④: 오히려 케번디시는 가연성 공기를 플로지스톤이 과잉된 물로 해석했다.
- ⑤: 수은회에서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물'이 방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문확인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래 입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소관이지만, 행정기관도 법률의 시행 시기나 적용 기준, 법률의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국회만으로는 날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입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국회가 법률로써 행정기관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에, 혹은 국회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 행정입법이 이루어진다.

행정입법은 입법의 형식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라는 의미로,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 재판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규명령을 준수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이러한 위법 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㉑ 내리는 명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와 각 부의 장관이 직권으로 혹은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리는 명령인 총리령과 부령 등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에 적용되는, 조직 구성이나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등으로, 훈령이나 고시 등의 형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진다. 행정규칙은 통상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며,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아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